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1~4월 대외무역규모 10.1%(달러화 기준)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1조 9,758억 달러(한화 약 2,326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12.% 증가한 1조 944억 달러(약 1,289조 원), 수입은 7.1% 증가한 8,814억 달러(약 1,038조 원)임
- 아세안, EU, 미국, 한국이 주요 무역파트너로 나타남
  - 對아세안 교역액은 9.4% 증가한 2,893억 달러, 이 중 수출은 11.0% 증가한 1,622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1,271억 달러임
  - 對 EU 교역액은 8.9% 증가한 2,723억 달러, 이 중 수출은 19.3% 증가한 1,788억 달러, 수입은 6.6% 감소한 9,35억 달러임
  - 對미국 교역액은 10.9% 증가한 2,457억 달러, 이 중 수출은 14.9% 증가한 1,849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608억 달러임
  - 對한국 교역액은 10.6% 증가한 1,202억 달러, 이 중 수출은 14.7% 증가한 504억 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698억 달러임
- 전기기계 제품과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이 증가
  -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8.9% 증가한 6,339억 달러이며, 이 중 자동데이터 처리설비·부품은 6.0% 증가한 799억 달러, 휴대폰 수출은 2.2% 증가한 460억 달러임
  - 방직품 수출은 11.1% 증가한 488억 달러, 의류 및 부자재 수출은 6.2% 증가한 470억 달러,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14.9% 증가한 330억 달러임. 농산품 수출은 21.2% 증가한 300억 달러임
- 철광석은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감소하고 원유, 석탄, 천연가스, 대두 등의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증가함
  - 철광석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7.1%, 33.2% 감소하고 원유, 석탄, 천연가스, 대두 등의 수입량은 각각 4.8%, 16.2%, 8.9%, 0.8% 감소, 수입액은 각각 49.7%, 78.6%, 59.9%, 24.2% 증가함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4335142/index.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

## 2 中, 올해 1분기 서비스 무역액 25.8% 증가

-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임
- 1~3월 서비스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한 1조 4,469억 위안(약 275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30.8% 증가한 7,139억 위안(약 135조 원), 수입은 21.3% 증가한 7,430억 위안(약 140조 원)임. 3월 당월 서비스 무역액은 14.1% 증가한 5,036억 위안(약 95조 원)으로 나타남
- 중국서비스아웃소싱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 확대 개방과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지식집약형 서비스무역이 양호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05/06/c\\_1310584692.htm](http://www.jjckb.cn/2022-05/06/c_1310584692.htm)

## 3 中, 4월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48.1% 감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중점 기업에서 제공한 주간보고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하여 4월 자동차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함
- 4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47.6% 감소, 전년 동기대비 48.1% 감소한 117.1만 대로 집계됨
-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2.3% 감소한 768만 대로 나타남

자료 : 중국신문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32067016097743807&wfr=spider&for=pc>

## 4 中, 석탄 생산량 확대로 석탄가격 안정세 회복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2022년 4호 공지)'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석탄 가격 조정정책 실시, 석탄 생산량 확대, 석탄 소비 비수기 진입 등 요인으로 현재 중국내 석탄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였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친황다오 5,500킬로칼로리 연료탄의 중장기 계약 가격은 톤당 720위안(약 13.6만 원)으로 3월과 비슷하고 5월 이후 일부 항구의 석탄 가격도 하락세를 보임. 북방항구의 5,000 킬로칼로리 석탄 가격은 3월 중순 최고 거래가 톤당 1,650위안(약 31만 원)에서 현재 1,000위안(약 18.9만 원)대로 하락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석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10.8억 톤이며, 이 중 3월 생산량은 14.8% 증가한 3억 9,600만 톤, 일간 생산량이 1,277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 정부는 올해 3억 톤의 석탄을 산시(山西), 산시(陝西), 네이멍구, 신장 등지에서 추가 생산하고 가격 조정조치로 석탄 공급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 부문은 석탄 생산업체와 전력업체 등 석탄 소비업체간 1년 이상의 중장기 계약 체결을 추진 중임
- 한편 국제 석탄가격 급등으로 4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기준가는 톤당 288.4달러로 3월 대비 41.6%, 전년 동기대비 232.7% 상승했으며, 업계 전문가는 올해 석탄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 : CCTV 재경

[http://www.ce.cn/cysc/ny/gdxw/202205/07/t20220507\\_37558820.shtml](http://www.ce.cn/cysc/ny/gdxw/202205/07/t20220507_37558820.shtml)

## 5 中, 1분기 비철금속 가격 상승세 지속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비철금속 산업은 생산량이 안정적이나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특징을 보임
- 10종 비철금속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한 1,617만 톤이며, 이 중 구리, 납, 아연 생산량은 각각 264만 톤, 181만 톤, 166만 톤으로 각각 6.1%, 1.2%, 0.7% 증가, 전해알루미늄 생산량은 963만 톤으로 0.4% 감소하였음
- 비철금속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임.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가격이 각각 톤당 7만 1,672위안(약 1,358만원), 2만 2,187위안(약 420만원), 1만 5,440위안(약 292만원), 2만 5,548위안(약 484만원)으로 각각 14.4%, 37%, 0.6%, 15.6% 상승하였고, 신에너지 산업의 수요 증가, 리튬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니켈, 코발트,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각각 톤당 19만 위안(약 3,599만원), 52만 5,000위안(약 9,946만원), 42만 1,000위안(약 7,975만원)으로 각각 43.2%, 54.4%, 456% 급등함
-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로 알루미늄재의 수출은 26.7% 증가한 163만 톤, 수출액은 65% 증가한 65억 달러, 구리 정광의 수입은 6.7% 증가한 635만 톤, 수입액은 12.7% 증가한 138억 달러, 구리 수입은 2.6% 증가한 147만 톤, 수입액은 22.2% 증가한 122억 달러로 집계됨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https://wap.miit.gov.cn/gxsi/tjfx/yclgy/ys/art/2022/art\\_a32fadd5ae5240afa548810d1eecea24.html](https://wap.miit.gov.cn/gxsi/tjfx/yclgy/ys/art/2022/art_a32fadd5ae5240afa548810d1eecea24.html)

## 6 中, 리튬 분야 상장회사 1분기 양호한 실적 달성

- 금융서비스업체 Win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튬업계 상장회사 14개사의 매출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61.7% 증가한 1,729억 위안(약 33조원), 순이익은 398.2% 급증한 243억 위안(약 4.6조원)을 기록함
- 간펑리튬(赣锋锂业)의 매출은 233.9% 증가한 54억 위안(약 1조원), 순이익은 640.4% 증가한 35억 위안(약 6,631억원)이며, 텐치리튬(天齐锂业)의 매출은 481.4% 증가한 53억 위안(약 1조원), 순이익은 1,443% 증가한 33억 위안(약 6,252억원)에 달했음
- 1분기 리튬 산업현황 전반을 보면 업스트림 리튬회사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미드스트림 동력배터리 회사인 CATL(宁德时代), 귀쥘가오커(国轩高科), EVR(亿纬锂能) 등의 순이익은 각각 23.6%, 32.8%, 19.4% 감소하였음
- 상하이유색금속망에 따르면 올해 4월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50.3만 위안(약 9,52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초 대비 81% 인상되었고, 2021년 연초 5만 위안(약 947만원) 대비 가격 상승폭이 9배 이상에 달했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톤당 46.2만 위안(약 8,752만원) 수준으로 하락함
- 신에너지차의 판매량 및 동력배터리 탑재량 증가세가 탄산리튬 가격 상승을 견인했으며, 1분기 신에너지차 누적 보급량은 1,000만 대를 돌파한 1,033만 대,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시장침투율이 19.3%로 2021년 대비 5.9%p 상승하였음. 동력배터리 탑재량은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한 46.87GWh임

자료 : 증권신문

[http://www.ce.cn/cysc/ny/gdxw/202205/06/t20220506\\_37555121.shtml](http://www.ce.cn/cysc/ny/gdxw/202205/06/t20220506_37555121.shtml)

## 7 中,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입량 22.5만 대로 4.4% 감소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3월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한 22.5만 대, 수입액은 9.6% 증가한 14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로 집계됨
- 수입 차종을 볼 때 오프로드차 수입량이 소폭 증가하고 자가용과 소형버스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상기 3대 차종 수입량이 21.5만 대로 전체 수입량의 95.6%에 달했음

- 한편 1분기 고급 승용차 수입은 증가세로 수입 비중이 2017년의 77%에서 2022년 1분기 91%로 상승함
- 중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정세를 보였고 2021년 수입량은 93만 대로 2020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2년간에는 트럭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05/06/c\\_1310585325.htm](http://www.jjckb.cn/2022-05/06/c_1310585325.htm)

## 8 中,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시내 면세점 확장 추세

- 최근 국무원은 '소비 잠재력 방출로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시내 면세점 정책을 완비하여 중국 특색의 시내 면세점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음. '중국 특색의 면세점'에는 중국 문화 홍보 뿐만 아니라 중국산 브랜드를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 시내 면세점은 리다오 면세점, 공항 면세점과 달리 주요 도시의 시내 중심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중국 해관의 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관광객 대상 면세상품을 판매함. 정책 혜택에 힘입어 도시 면세점과 기타 면세 업종의 발전이 소비시장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소비의 양적 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에 관한 실시의견' 및 '14차 5개년 계획' 등에서 시내 면세점 건설을 언급하였음. 현재 중국의 시내 면세점은 규모가 작고 발전 초기 단계이며, 시내 면세점은 점포 위치 선정, 취급 상품 종류, 임대료 등 면에서 공항 면세점 대비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귀타이쥘안(国泰君安) 증권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 시내 면세점의 2023년 매출은 172.5억 위안(약 3조 원), 이윤 총액은 34.5억 위안(약 6,56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현재 주요 도시에 12개의 시내 면세점이 오픈되어 150개 브랜드의 3,700여종의 상품을 판매 중임. 중국면세그룹(中国中免)은 베이징, 상하이, 샤먼, 다롄, 칭다오 등 도시에 시내 면세점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했음
- '2022년 중국 상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소비자들의 고급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면세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자료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5/202205021509511006.html>

## 9 中, 2022년 중고차 거래량 1,900만 대 돌파 예상

- 중국의 중고차 시장규모가 꾸준한 성장세로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는 코로나19로 중고차 거래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2022년 거래량이 1,9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중국의 중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1,759만 대에 달했음
- 올해 3월 중고차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4% 증가한 132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거래액은 911억 위안(약 17조원)으로 집계됨. 1분기 중고차 거래량은 38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 거래액은 2,727억 위안(약 52조원)으로 나타남
- 3월부터 충칭, 선전, 하이난, 허페이 등지에서 차량 구입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였고, 4월 21일 상무부는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유통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중고차 유통을 확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빠른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4/202204281010591018.html>

## 10 中, 1분기 컬러TV 판매 부진...판매량 12년 이래 최저치

- 컨설팅회사 AV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컬러TV 판매량과 판매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0.8% 11% 감소한 883만 대, 227억 위안(한화 약 4조 원)임. 2021년 중국의 컬러TV 판매량은 4,000만 대로 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음
- 컬러TV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대형TV 판매량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70인치 및 70인치 이상 대형TV 온라인 판매량은 각각 26.8%, 25.8% 증가했고, 오프라인 판매량은 각각 13.4%, 14.8% 증가함
-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TV가 영상회의, 헬스, 엔터테인먼트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화면이 큰 대형TV를 선호한다고 밝힘
- 또한 화안증권(华安证券)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32인치, 43인치, 55인치 액정패널 가격이 각각 42달러, 74달러, 117달러로 2021년 6월 최고치 대비 각각 52%, 45%, 48% 하락하여 TV 가격에 영향을 미침
- AVC에 따르면 1분기 32인치, 43인치, 55인치, 58인치 TV 판매가가 2021년 4분기 대비 각각 10.2%, 6.6%, 8.1%, 9.7% 하락하였음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industry.caijing.com.cn/20220428/4857186.shtml>

## 11 中, 1분기 소프트웨어 매출 11.6% 성장한 382조원 달성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로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은 2조 60억 위안(약 382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6% 성장했고, 이윤 총액은 2,031억 위안(약 38.7조 원)임
-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9.8% 증가한 5,097억 위안(약 97조 원), 이 중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12.1% 증가한 514억 위안(약 9.8조 원)으로 나타남
- IT 서비스업 매출은 13.7% 증가한 1조 3,102억 위안(약 250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65.3%를 차지함. 이 중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10.4% 증가한 2,052억 위안(약 39조원)임. 집적회로 매출은 17.2% 증가한 538억 위안(약 10조 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서비스 매출은 19.7% 증가한 1,916억 위안(약 36조 원)이며, 산업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17.4% 증가하였음
-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은 12.9% 증가한 338억 위안(약 6.4조 원)으로 집계됨
- 한편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의 매출은 각각 10.7%, 14.7%, 18.2% 증가한 1조 6,565억 위안(약 315조 원), 666억 위안(약 12.7조 원), 2,472억 위안(약 47조 원)임

자료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4/27/content\\_25915029.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4/27/content_25915029.htm)

## 12 中, 2026년 온라인 헬스시장 규모 170조원 예상

-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헬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로 향후 온라인 헬스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중타이증권사(中泰证券)는 중국의 헬스인구는 2021년의 3억 300만 명에서 2026년 4억 1,600만 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하고, 헬스시장 규모는 2021년의 7,866억 위안(약 149조원)에서 2026년의 1조 4,793억 위안(약 28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줍즈컨설팅(灼识咨询)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헬스시장 규모는 2021~2026년 연평균 19.3%씩 성장하여 8,965억 위안(약 1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온라인 헬스시장에는 온라인 헬스 회원권 및 헬스 콘텐츠, 스마트 헬스기기, 헬스 장비 및 의류, 건강식품 등이 포함되며, 이 중 건강식품 비중이 2021년 기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https://baijiahao.baidu.com/s?id=1731253655346231984&wfr=spider&for=pc>